

“이겨야 프로 ... 타이거즈 명가 재건 나서겠다”

김종국 KIA 타이거즈 신임 감독

1996년 입단 ‘타이거즈 원클럽맨’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 가져
“부족한 장타력 스피드로 극복
공격적이고 이길 수 있는 야구 하겠다”

“프로는 이겨야 한다. 책임감으로 명가 재건에 나서겠다.”
KIA 타이거즈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종국 수석코치를 선택했다. 계약기간은 3년, 계약금 3억원·연봉 2억5000만원이다.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거쳐 1996년 KIA 전신 해태 유니폼을 입은 김종국 신임감독은 2010년 그라운드와 작별할 때까지 ‘타이거즈맨’으로 살았다.
작전, 주루코치 그리고 수석코치에 이어 지휘봉을 잡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타이거즈를 떠난 적이 없다.
명가재건이라는 짐을 짓기 위해 바닥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KIA는 누구보다 팀을 잘 아는 이를 감독으로 선택했다.
김 감독에게 타이거즈는 ‘자부심’이다.
그는 “타이거즈맨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돼서 기쁘다”면서도 “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진다. 기쁨보다는 명가재건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는 ‘초보 감독’에게 3년의 시간을 약속했다. 3년은 또 다른 책임감이라고 말한다.
김 감독은 “3년이라는 부분에 더 책임감이 느껴진다.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라는 주문”이라며 “전력이 약하다고, 전력만 이야기할 수 없다. 프로는 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기는 야구’를 목표로 지휘봉을 들게 된 김 신임감독은 “선수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선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선수 생활, 코치할 때도 느꼈지만 어차피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감독, 코칭스태프는 잘할 수 있게 판을 잘 만들어주면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다. 책임은 감독이 먼저 지는 것이다”며 “선수들이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적극·공정적으로 플레이하도록 준비를 하자는 게 내 철학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칭스태프에게도 권한을 많이 줄 것이다. 대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권한을 준 만큼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어차피 책임은 감독, 코칭스태프가 지니고 선수들이 기쁘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게 준비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선수, 코치 시절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는 그라운드 주연은 아니었지만 베테랑의 카리스마로 분위기 싸움을 이끌고 ‘V’의 순간에도 함께 했다.



KIA 타이거즈의 10대 사령탑을 맡게 된 김종국 신임 감독이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수비 실력으로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로도 활약하는 등 다양한 경험도 갖췄다.
하지만 처음 선수단 전면에 서게 되는 만큼 김 감독은 ‘준중’으로 팀을 이끌어갈 생각이다.
그는 “요즘 선수들은 개성도 더 강해졌고, 생각도 다르다.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야 한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존중이다”며 “나도 선수들을 존중하고, 선수들도 감독을 존중해야 한다. 감독, 코치, 프런트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존중하면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을 위해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1973년생 동기인 장정석 단장과 ‘명가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위해 호흡을 맞추게 됐다. 역시 ‘준중’으로 목표를 향해 나란히 걸어갈 생각이다.
김 감독은 “단장님 의견을 많이 들을 생각하고, 단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같이 야구를 했던 동기니까 더 잘 맞는 것도 있다”며 “단장님이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강팀을 만들기 위해 나와 단장님이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존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마무리캠프를 지휘하면서 2022시즌 밀그림은 그렸

다.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한 그는 ‘스피드’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 감독은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야수들도 좀 더 공격적이고, 빠르게 바꿔야 한다. 훈련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며 “현재 우리팀은 장타력이 부족하다. 그만큼 빠른 야구를 해야 한다. 더 공격적인 야구, 작전을 통해 한 베이스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바꿔가면서 이길 수 있는 야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분위기는 최고·성적은 아쉬움

기업은행에 0-3 완패



팀 분위기가 좋다고
꼭 이기리란 법은 없었
다.

AI페퍼스는 5일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패했다. 세트스코어 0-3(20-25, 20-25, 11-25).

최근 팀 내 불화로 혼란스러운 기업은행이었지만, 기본기와 경륜이 탄탄한 김희진·표승주·김수지 등 국가대표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반면 AI페퍼스는 경기 초반부터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과 잦은 범실에 시달렸다.

1세트에서 한 때 7-7까지 팽팽하게 맞섰으나, 김수지의 속공·블로킹에 잇따라 얻어맞으며 순식간에 1세트를 내줘야 했다.

2세트에서는 박경현을 빼고 박은서를 주전으로 내세워 분위기를 바꿔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초반부터 범실을 쏟아내며 쉽게 점수를 내주고, 점수차는 5-12로 벌어졌다. AI페퍼스의 공격은 김수지의 블로킹에 막히고, 라센·김희진·표승주의 공격에 수비진이 무너졌다. 20-24로 세트포인트를 내주고, 이한비의 오픈 공격이 김수지 블로킹에 막히면서 2세트도 허무하게 패배했다.

3세트도 0-5 최악의 스코어로 시작했다. 엘리자벳과 이한비의 공격이 김희진과 김경영, 김수지의 블로킹벽을 뚫지 못했다. 리시브란 불은 거듭 네트 너머로 튀어 찬스볼을 내줬다. 4-14 압도적인



AI페퍼스 선수들이 5일 열린 기업은행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KOVO 제공〉

점수차로 끌려갔다. 결국 경기 중 한번도 흐름을 타지 못한 AI페퍼스는 3세트마저도 14-25로 맥없이 내주고 말았다.

최근 기업은행은 팀 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난달 조승화가 서남원 감독과 불화로 팀을 무단 이탈한 데 이어 김사니 코치도 잇따라 팀을 나왔다.

기업은행은 서 감독을 경질하고, 김 코치를 다시 불러 감독대행을 맡겼다. 하지만 타 구단 감독들이 김 감독대행 약속을 보이듯, 그도 결국 3경기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지난 11월 팀에 들어온 안태영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세운 상태다.

팀 분위기는 AI페퍼스가 훨씬 좋았지만, 경기에서는 달랐다.

AI페퍼스는 2세트까지 득점 35점으로 기업은행 31득점보다 앞서 있었지만, 19번의 범실을 저지르면서 쉽게 점수를 내줬다. 3세트까지 전체 범

실 횟수는 AI페퍼스가 22회, 기업은행이 8회에 불과했다.

위기 관리 능력도 아쉬웠다. 세트스코어 0-2로 수세에 몰려 시작한 3세트, 멘탈이 흔들린 AI페퍼스는 점수차가 10점 넘게 벌어지도록 맥없이 끌려갔다. 김형실 감독이 “마음 놓고 편하게 플레이하라”고 연신 강조했지만, 공격 사인이 맞지 않거나 어택 커버가 한 박자 늦는 등 여수선한 모습이 이어졌다.

수확도 있었다. 신인 박은서는 지난 흥국생명전에 이어 이날도 2세트에 주전으로 출전, 11득점(공격 성공률 61.54%)을 올리며 가능성을 보였다. 엘리자벳도 여전히 위력적인 스파이크를 앞세워 18득점(공격 성공률 42.5%)을 기록,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AI페퍼스는 8일 광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으로 돌아와 G칼텍스와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FC, 김호영 감독 계약해지 ‘논란’

폐막전 인천과 1-1 무승부 엄원상 골 넣고 부상

모든 게 좋지 못했던 광주FC의 2021시즌 폐막 전이었다.

광주는 지난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K리그1 38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2021 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전이었다.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된 만큼 광주 선수들은 승리를 다짐하면서 그라운드에 올랐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광주를 상징하는 엄원상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헤이스의 크로스를 받아 머리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장식했지만 화려한 세리머니는 없었다. 엄원상은 두 손을 모은 채 관중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팀의 잔류를 이끌지 못한 ‘헤이스’의 미안함을 담은 세리머니였다.

광주는 지난 37라운드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0-1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에 나섰다.

엄원상의 골로 시작한 경기의 끝은 좋지 못했다. 전반 37분 인천 유동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마지막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와 함께 광주의 올 시즌 성적은 10승 7무 21패(승점 37)가 됐다.

최종전 승리를 만들지 못한 선수들은 경기 끝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선수단 버스에 올랐다.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부진상을 당한 동료 이옴을 위로하기 위해 선수들은 빈소가 마련된 강원도로 향했다. 선수들은 이날 감정 완장을 차고 경기에서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버스 분위기는 전제된 소식들로 더 무거웠다. 경기 종료 직전 인천 박창환에 밀려 넘어졌던 엄

원상은 이 버스에 타지 못했다. 들것에 실려 나왔던 엄원상은 병원 검진 결과 원발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올 시즌을 함께 했던 김호영 감독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날 경기 전 광주FC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김호영 감독의 거취를 논의했고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김호영 감독은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과의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김 감독은 “(대표이사)와 이야기 중에 왔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올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들도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팬분들에게 잔류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한편으로 어린 선수들 육성한 만큼 내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다시 1부로 올리는 게 내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구단은 이날 ‘계약해지’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김 감독과의 작별을 공식화했다.

김호영 감독은 올 시즌 목표로 했던 홈컷 승, 포항전 승리, 임지성·허을 등 미래 자원 육성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제주전 물수패, 서울전 대역전패 등에 발목을 잡혔다.

결국 ‘잔류’라는 가장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김호영 감독은 아쉬움 속에 고향팀에서의 도전을 멈추게 됐다.

그리고 한 배를 탔던 감독과 구단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갈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분위기에서 광주의 2021시즌이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